3괘 : 212211 : 둔(水雷屯)

1. 전체 : 둔은 으뜸으로 형통하다. 이로운 것은 정하는 것이다. 작용하지 말라. 가려는 바가 있으면 이로운 것은 제후를 세우는 것이다.
2. 1효 : 처음에 양이 오니, 반석이 굳고 튼튼한 상이다. 이로운 것은 정함에 머무르는 것이다. 이로운 것은 제후를 세우는 것이다
3. 2효 : 음이 두번쨰에 오니, 둔치는 구나, 머뭇거리는 구나. 말에 올라탔다가 도로 내리는구나. 침범할 것이 아니라 혼인동맹을 맺을 일이다. (그런데) 여자가 정해서 아이를 낳지 않으려 하나, 10년이면 이에 아이를 낳을 것이다.
4. 3효 : 음이 세번째 오니, 사슴에 다가드는데, 우인이 없어서 숲속으로 들어가는 상이다. 군자라면 버림만 같지 못하다는 기미를 눈치 채야 한다. 그대로 행하면 (결과가) 인색할 것이다.
5. 4효 : 음이 네번째에 오니, 말에 올라탔다가 도로 내리는구나. 혼인 동맹을 구하고자 하니 행하면 길할 것이다. 불리할 것이 없다.
6. 5효 : 양이 다섯 번째에 오니, 둔쳐서 그 곳을 기름지게 한 상이다. 작게 정하면 길하고 크게 정하면 흉하리라.
7. 6효 : 극상의 자리에까지 음이 오니, 말에 올라탔다가 도로 내리는구나. 피눈물이 물결처럼 흐르는 구나.